

고품질 · 기술력, 21세기 알루미늄 산업 선도

아산공장 통합 준공 통해 '제2의 도약'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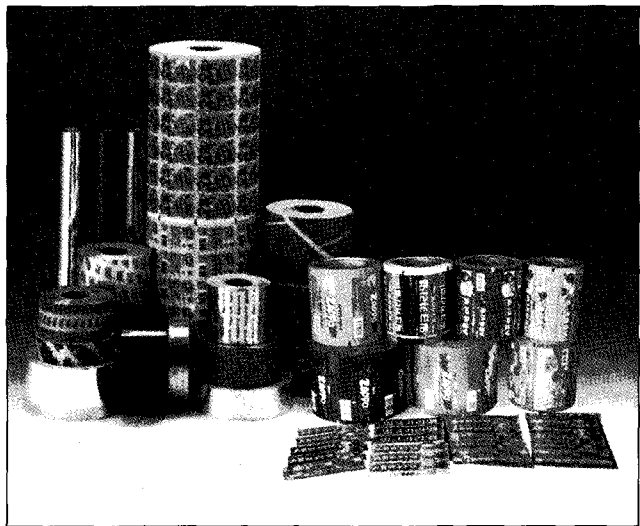


김 문 신
대한은박지공업(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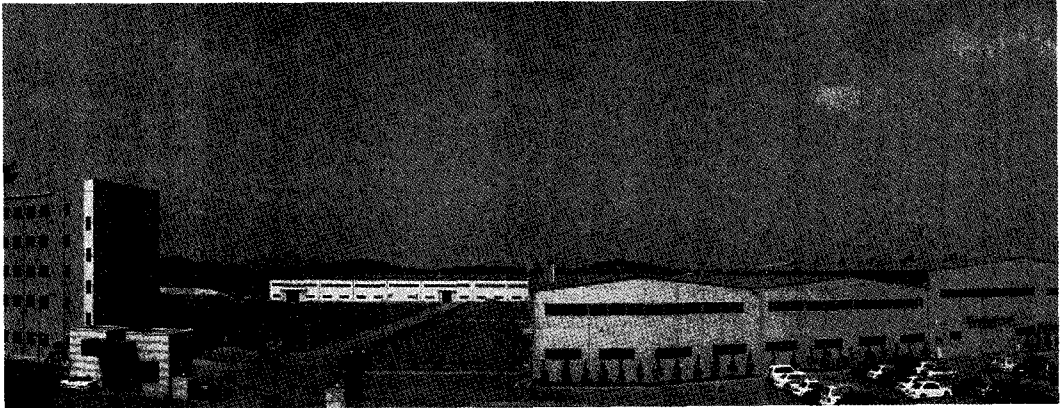
식품을 비롯한 낙농, 제과, 제약포장 산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재료로 인정받는 알루미늄 박은 우수한 광택성과 미려한 색상, 가공성, 방열성, 전도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특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의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침체기였던 2003년 국내 산업 경기 속에서 알루미늄 박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을 터. 이런 상황 아래,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과 새로운 공장 준공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대한은박지공업(주)(대표이사 김문신)을 찾았다.

지난 1971년 대한제박(주)으로 설립된 대한은박지공업(주)은 30여년간 알루미늄 박 및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하



▲ 대한은박지공업(주) 생산제품



▲ 충남 아산에 위치한 대한은박지공업(주) 공장 전경

며 '일등제품'이라는 자부심으로 알루미늄 박 업계의 발전을 선도해 온 업체이다.

현재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냉난방 FIN재용, 모니터를 비롯해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콘덴서 호일, 광케이블 및 전선 피복재, 연포장재용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적 우위확보를 위해 첨단 연구설비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1973년 알루미늄 박 및 알루미늄 접합지에 대한 KS 허가를 획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고품질 제품을 인정받기 시작한 대한은박지공업(주)은 이후에도 은박가정용품에 대

해 Q마크를 획득하고 제24회 수출의 날에는 1,000만불 탑을 수상했다. 특히 1996년에는 알루미늄 박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획득,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과 품질의 신뢰성을 공고히 했으며 품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접합지, 알루미늄 박 가공제품 등을 인도, 일본,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세계 25여개국에 수출, 수출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대한은박지공업(주)은 지난 82년 입사한 이래 구매과(부)장, 총무이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노하우를 터득한 김문신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내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은박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회사 전반에 걸친 변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1의 실천으로 대한은박지공업(주)은 지난 10월 24일 기흥에서 가동되던 압연 공장과 평택의 가공 및 알페스트 공장을 통합, 서해안 물류의 중심지인 충청남도 아산에 대지 34,000평, 건평 1만1천평의 통합 공장을 건설,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독일 아켄바(社)로부터 최첨단 압연기를 도입하고 영국 MIDI(社)의 호일 분리기를 증설, 최고의 품질 및

DAE HAN

생산 능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설비를 보유, 가동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김문신 사장은 “공장간 물류 비용의 발생 및 관리의 분산으로 인적, 물적 낭비 요소가 발생해 회사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지난 2000년부터 공장 통합을 준비하게 됐다”고 통합 경위를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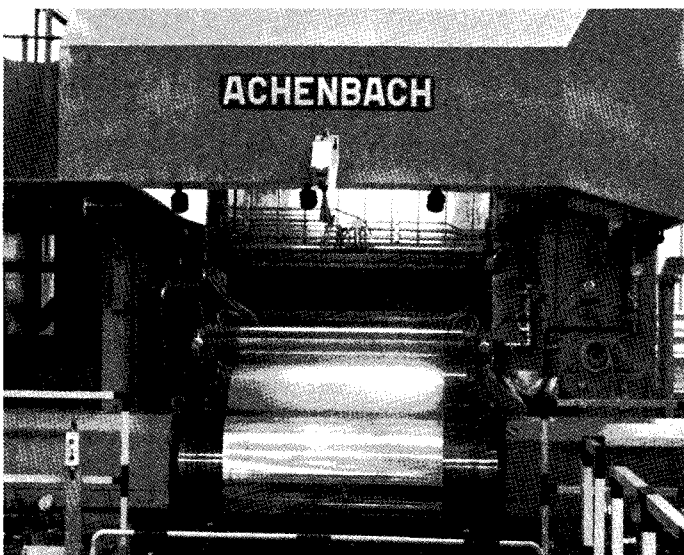
히면서 “아산공장 준공을 통해 제2의 창업정신으로 고객 감동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은박지공업(주) 아산공장과 서울본사, 부산사무소에는 4백여명의 임직원이 알루미늄 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홍배 회장에서부터 현재 김

문신 사장에 이르기까지 추구해 온 ‘동반자적 노사관계’는 대한은박지공업(주) 경영자들이 강조해 온 경영철학.

대한은박지공업(주)은 현재 노사신뢰 확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제도화 해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국민에게 봉사하는 풍요로운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복지후생제도로서 1972년부터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자녀입학금 및 공납금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 사원의 주거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모범장기 근속사원을 대상으로 근무의욕 재고를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작은 부분이라도 사원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알루미늄 박 업계는 중



▲ 독일 아켄바로부터 도입한 최첨단 압연기



▲ 지난 10월 24일 대한은박지공업(주) 아산 공장 준공식

국으로 수출하던 과거의 흐름에서 벗어나 낮은 단가로 국내로 역수입 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조장해 알루미늄 시장이 가격경쟁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신 사장은 “국내 알루미늄 박 생산업체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사용 업체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장은 물류의 기초이며, 구매욕구의 자극을 통한 매출의 상승효과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이라고 강조하는 김문신 사장. 그는 이러한 포장의 기치에 걸맞게 대한은박지 역시 선진 포장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대한은박지공업(주)

은 설비를 안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한편, 매출액과 설비 가동율의 10%를 향상시키고 고객 불만을 및 재해율 제로(zero)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섬세한 경영 전략과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여성’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떠오르는 현재, 김문신 대한은박지공업(주) 대표이사의 활약을 기대한다. ko

박초혜 기자